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안 성 수*

목 차

1. 서 론
2. 글짓기와 인성교육의 관련성
3. 글짓기의 단계별 특성과 지도방법
4. 글짓기를 통한 인성지도 방법
 - 1) 자유과제지도법
 - 2) 목적과제지도법
5. 결 론

1. 서 론

이 연구는 글짓기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인성을 계발하고 함양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민감한 변화의 시기를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풍부한 정서 함양과 바람직한 인성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인성의 문제는 그들이 장차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적 품성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요청된다.

인간은 글을 쓰면서 성장한다. 마틴 부버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글쓰기는 인간의 전 지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대상의 세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이다. 작자는 글감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대상의 세계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깨달음과 인식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깨달음과 의미 찾기(혹은 의미부여하기), 이것은 작자가 글짓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다. 이런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 제주대 교수.

맛보기 위해 작자는 글감의 심연 속으로 탐입하여 인간과 세계와 우주의 관계를 예리하게 성찰해야 한다. 인간의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대상과의 창조적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아의 세계를 확충해 나가는 동력이 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글쓰기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글짓기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글짓기는 우리말의 종합적 활용능력을 심화시켜 주고, 정서 함양과 인성 계발에 크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글짓기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에 장애가 되는 문제요인을 찾아내어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인 인성검사도구로서도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의 글짓기 교육은 거의 소외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자는 글짓기 지도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실천방법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유과제지도법으로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글짓기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교사가 어느 특정 학생으로부터 인성발전의 장애요인이나 조짐을 발견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제목과 주제를 주고 글짓기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글짓기 방법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수필 쓰기¹⁾와 관련시켜 단계별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인성지도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직 작자의 개인적 체험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득이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혀둔다. 실증적 연구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글짓기 지도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글짓기 교육은 국어교육과 인성교육의 양차원에서 현장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가 왔다고 본다.

2. 글짓기와 인성교육의 관련성

“마담 보바리, 그녀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은 플로베르가 자신이 쓴 소설, 『보바리 부인』의 작중인물을 두고 한 말이다. “문체는 곧 사람이다.” 이 말은 뷔퐁

1) 필자는 수필을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꾸미지 않고 집필자 자신의 체험을 가장 진솔하게 고백하는 장르”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글쓰기’와 ‘글짓기’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작가와 문체의 관계를 설명한 말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곧, 글이나 문체 혹은 문장 속에 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진솔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글과 문장은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밝혀주는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창작 심리나 문장심리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글짓기란 작자가 상상력의 힘을 빌어 대상(글감)으로부터 얻은 정서적 반응과 인식의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의미 있게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글은 작자의 사상과 감정은 물론, 은밀한 욕망과 심리까지도 섬세하게 담아내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글짓기는 단순한 언어의 조직과 배열이 아니라, 작자가 선택한 대상세계와의 은밀한 대화인 동시에 자기의 내면의식을 언어로 표출하는 자기 고백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글짓기는 자기의 내면세계 속으로 대상의 세계를 끌어들이어 인간과 사물이 서로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상호 조용행위에 비할 수 있다. 작자와 대상이 나누는 이러한 내적 조용은 안으로는 작자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밖으로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길이 된다. 글짓기는 이렇게 작자에게 인식력과 통찰력을 신장시켜 줄뿐만 아니라, 대상 세계와의 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성과 정서를 함양시켜 주고 정신적 성숙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건전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해야 할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글짓기가 인성 계발에 미치는 효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짓기는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신장시킨다.³⁾ 둘째, 글짓기는 풍부한 인성의 발달과 계발을 촉진시킨다. 셋째, 글짓기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통하여 자기애를 진작시킨다. 넷째, 글짓기는 대상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비판하며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다섯째, 글짓기는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확대시켜 준다. 여섯째, 글짓기는 감정이입

2) 진정한 글쓰기는 마틴 부버가 주장한 세 가지 대화의 유형 중에서 “진정한 대화(der echte Dialog)”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대화는 말로 하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대화의 참여자가 그 상대자를 있는 그대로의 현존과 본질에서 인정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양자의 사이에 생동하는 상호성이 생기는 대화를 말한다.’ 이삼열, “마틴 부버에서 본 대화의 철학”,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대화의 철학』(서울: 서광사, 1992), p.236.

3)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서울: 교학사, 1995), pp.181~183. 여기서 저자들은 작문능력의 중요성을 사고력 증진의 수단 외에도 의사소통의 수단, 의사결정능력의 신장 수단, 긍정적 정서의 강화 수단 등으로 설명한다.

과 카타르시스 효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서의 함양을 촉진시켜 준다.⁴⁾ 는 점 등이다.

참고로, 작자는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글짓기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제주대학교 중등교원연수원이 주관한 제주도내 교도교사 연수에 강사로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14항목에 이르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이 연구의 부록으로 실었다.⁵⁾ 이때 실시된 강좌는 작자 자신이 수년간 대학에서 글짓기 지도를 통해 얻은 체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글짓기 교육을 새로운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소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는 강의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호응도와 새로운 인성교육에의 참여 가능성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70명의 대상자중 질문에 응한 69명의 설문결과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 중 85.5%가 글짓기 지도를 인성교육의 문제로 다룬 글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글짓기 지도를 수행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글짓기를 통한 인성교육 방법이 교사들에게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2) 글짓기가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8.6%로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의 글짓기 교육이 정서순화 등을 통한 인성계발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91.3%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글짓기 지도가 인성 교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사들에게 앞으로 글짓기 지도를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활용할지의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있다”가 69.7%, “고려해 보겠다”가 27.5%로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교사는 모두 97.2%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인성교육 방법으로 글짓기 지도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4) 글짓기가 학생들의 인성지도 방법으로 적절한지를 묻는, “학생의 문제의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글쓰기(일기,수필)가 49.3%, 친구와의 대화가 47.8%로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4) *Ibid.*, pp.182~183. 여기서 저자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졌던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경험을 확충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가진 학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5) 이 설문조사는 <글짓기 지도와 인성교육에 관한 설문지>란 제목으로 1996년 7월 29일 70명의 교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69명이 설문에 응했다.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욕망과 갈등을 암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글쓰기”를 묻는 질문에는 일기(71%), 편지(18.8%), 수필(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일기와 편지는 수필의 장르에 넣을 수 있으므로 결국, 수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필 쓰기가 학생들의 인성지도 방법으로 충분히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글짓기를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72.6%가 긍정적 답변을 줌으로써 글짓기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5) 그러나 “요즘 학생들이 글짓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싫어한다”가 56.5%, “지겨워한다”가 30.4%를 보여줌으로써 바람직한 글짓기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글짓기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부여가 잘 되어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생들에게 직접 묻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그들을 10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의 답변이라는 점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글짓기를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려워서”가 24.6%, “교육방법이 잘못 돼서”가 17.4%, “흥미유발이 잘 안 돼서”가 52.2%임을 볼 때, 그 동안 학교에서의 글짓기 교육이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글짓기 교육이 인성지도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글짓기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글짓기의 교육 방법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끝으로, ‘글짓기 교육을 정례화 시킴으로서 인성교육의 한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의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는 “꼭 해보겠다”가 13%, “한번 해보겠다”가 46.4%를 보여줌으로써 강의후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문내용과 조사결과는 이 논문의 <부록>으로 실었음).

이제, 글짓기의 단계별 특성과 지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3. 글짓기의 단계별 특성과 지도방법

1) 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글짓기 지도는 어떤 절대적인 순서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글짓기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글짓기 행위 자체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의 형식이나 기교 및 문장력보다는 진지한 글쓰기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글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솔직한 글은 감동의 기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좋은 글의 요건도 된다. 그리고 진실하고 솔직한 글은 작자의 내면 세계에 숨어있는 인성발달의 장애요인과 그 심리적 근거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짓기를 실시하기 전,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의 형식이나 기교 및 문장력 등에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쓴 진실한 글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한다. 둘째, 글을 쓰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의 시간이자 대상(우주)과의 심오한 교통의 시간임을 인식시킨다. 셋째, 글짓기는 사고력, 인식력, 판단력, 성찰력 등을 신장시켜주고, 나아가 도덕성과 주체성이 강한 의식 있는 인간을 길러주는 훌륭한 인성계발의 학습방법임을 숙지시킨다. 넷째, 글짓기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함양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건전한 세계관과 인간관 및 우주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기수련의 한 방법임을 인식시킨다. 다섯째, 글짓기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을 버리고 글짓기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한다.

2) 단계별 특성과 지도방법

글짓기에 어떤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의 요령은 앞으로 상술하게 될 자유과제지도법이나 목적과제지도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글짓기 지도의 단계별 특성과 지도방법에 대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작자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의식의 설정단계이다. 주제의식의 설정이란 한 마디로 작자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주제의식과 주제는 구분되는 개념이다.⁶⁾ 집필 전에 가지고 있던 주제의식은 글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작자는 글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을 쓰는 동안 자신이 보여주게 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주제는 가급적 그 의미범주가 작고 구체적인 것이 좋다. 예컨대, “사랑”보다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처럼 좁게 한정시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작자가 쉽게 글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주제가 바람직한데, 그러한 주제는 작자가 잘 알고 있거나 흥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주제의식을 떠올리는 방법으로는 흔히 두 가지 방식이 쓰인다. 첫째는 먼저 글감을 모은 뒤 그 글감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떠올리는 방법이다. 둘째는 주제의식을 먼저 떠올리고 나서 나중에 그에 어울리는 글감을 찾는 방식이다. 주제의식 설정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글짓기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그 설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주제의식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한 뒤에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단계는 주제의식을 글로 형상화하기에 적절한 글감(제재)을 찾는 단계이다. 주제의식의 설정 못지 않게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글감을 찾는 것도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글감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작자가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작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글감은 역시 자신이 몸소 겪은 직접체험만한 것이 없다. 그밖에 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고, 근거가 확실한 글감을 선정하는 것도 성공적인 글쓰기의 조건이다. 그러나 앞서의 언급처럼, 주제의식의 설정단계와 글감의 선택단계는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셋째 단계는 이야기의 열개를 짜는 글의 구성(구조화) 단계이다. 자신이 구상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여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감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안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글의 열개를 짜고 나서 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문장으로 도식화하는 개요(아우트라인)작성은 구성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개요는 항목개요보다 문장개요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개요작성은 글의 흐름과 핵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

6) 주제의식과 주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작자가 집필 전까지 가지고 있는 집필의도나 문제의식 등을 가리키고, 후자는 집필과정을 통하여 형상화해 낸 글의 핵심적인 사상이나 의미를 가리킨다.

고, 내용의 중복을 막아주는 점 외에도 글의 집필 순서와 분량, 그리고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일관성 있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크다.7)

문학적인 글쓰기에서 글의 구조화 단계는 다양한 미적 감동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적 장치와 기법을 삽입하는 과정이지만, 초심자에게는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 이야기의 효율적인 틀 짜기와 미적 기법의 활용은 글짓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뒤에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심자들에게는 자칫 글짓기가 복잡하고 귀찮은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진솔한 체험을 꾸밈없이 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단계는 앞 단계에서 설정한 이야기의 틀에 문장과 문체로 찬 서술의 옷을 입히는 단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글의 틀과 글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초심자의 문장지도는 정확한 어법의 사용과 정확한 의미전달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는 가급적 배제하면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논리에 맞게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락과 단락,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의 의미연결에도 유의하여 문장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밖에도, 이 단계에서는 서술화자 즉 전달자의 시점을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목소리와 톤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를 확정된 뒤 집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단계는 제목을 정하는 문제이다. 제목은 글의 주제를 한 마디로 압축한 것이므로 글의 종류에 따라 명료성과 상징성, 암시성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8) 일반적으로 문예문의 제목은 글의 핵심 정보를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가급적 독자를 궁금하게 만들어 본문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흔히 글 속에 있는 단어나 구문 중에서 제목을 뽑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한 제목은 내용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초심자의 글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제목을 뽑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7) 구성과 개요(아우트라인)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글의 핵심적인 뼈대나 틀 짜기를 말하고 후자는 글의 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언어로 도식화한 것을 가리킨다.

8)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논리적인 글은 명료한 제목이 좋고, 문예문은 암시성과 상징성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글다듬기 즉 퇴고의 단계이다. 좋은 글은 정성어린 반복적 퇴고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글쓰기의 요건임을 인식시킨다. 글다듬기는 글짓기의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면서 글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글을 쓸 때마다 적어도 3-4회 이상 글다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글다듬기는 전체 글과 부분 글, 그리고 세부 글로 나누어 덧붙이기(부가), 덜어내기(삭제), 재배열하기(재구성) 등의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텍스트는 독자의 독서행위(수용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 글이나 작품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글짓기 지도를 활용한 구체적인 인성지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4. 글짓기를 통한 인성지도 방법

여기서 말하는 인성지도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인간성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적 배려와 지도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따라서 인성지도의 개념 속에는 순수한 인간성 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육체적 제 요인에 대한 발견과 개선의 의미도 포괄하는 개념이다.⁹⁾ 필자는 글짓기를 이용한 인성지도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유과제지도법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쓴 글을 텍스트로 하여 교사가 학생의 인성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추출한 뒤, 그것을 근거로 인성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둘째는 목적과제지도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에 따라 글을 쓰게 한 뒤, 교사가 학생의 글에서 발견한 인성 장애요인을 과제목적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그 결과를 인성지도에 활용하는 방법이다.¹⁰⁾ 전자는 부담 없이 실시하는 정례적인 지도방법으로, 후자는 어떤 학생에게 인성 장애

9) 인성(personality)의 개념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한다. 필자는 성격이나 기질, 인격, 개성 등을 전인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품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10) 이 두 가지 방법은 필자가 글짓기 지도를 인성지도와 연결시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실시하는 비정례적 방법으로 적당하다.

1) 자유과제지도법

이 방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써놓은 글을 텍스트로 하여 교사가 정확하게 학생들이 안고 있는 인성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과 갈등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텍스트를 전체 구조와 부분 구조, 또는 글짓기의 단계별 특성과 유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면밀히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창작심리와 문장심리를 폭넓게 활용하여 작자의 욕망과 갈등요인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교사는 학생들이 쓴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그가 왜 그런 문장과 그런 구조의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야 한다.

이제 텍스트의 효과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해 글짓기의 주요 구성요소와 인성지도 과정을 연결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창작심리와 관련시켜 해석해야 할 주요한 요소들은 글감(제재), 구조, 서술방법, 시점, 문체, 어조, 주제 등이다.

(1) 글감의 선택과 해석

글감은 작자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다. 해석자(지도교사)는 작자가 글감들을 어떻게 주제와 의미로 형상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제재를 중심 글감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작품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제재를 우화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 숨은 뜻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의 대상이 두렵거나 강렬한 경계(미움)의 대상일 때 글감은 상징화 암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글감을 배열하는 방식과 주제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작자가 암시하고 있는 욕망과 갈등의 뿌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글의 구조와 해석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글의 구조란 이야기의 틀과 뼈대를 말한다. 이것을 해체시켜 보면, 작자가 갈망하고 있는 욕망과 갈등의 정체와 쉽게 만날 수 있다. 즉, 주인공이 누구(무엇)와 무엇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등에 빠져 있는지, 혹은 주인공이 어떤 욕망의 목표를 어떻게, 왜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소상한 구조적 해명이 가능해진다.¹¹⁾

그러므로 글의 틀과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작자의 욕망과 진실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글의 구조는 작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주체의 형상화 방법)이자 집필 의도이다. 그런 점에서, 글의 틀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작자의 집필 의도를 밝혀주는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글의 틀과 구조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집필 배경과 상황을 주제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좋다.

(3) 서술 시점과 어조 및 명명법의 해석

글의 서술 시점과 어조는 한 마디로 작자의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어조 및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작자가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는 곧 집필 의도를 밝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컨대, 풍자의 어조인가? 해학의 어조인가? 비판의 어조인가? 조롱의 어조인가? 등에 따라서, 혹은 1인칭 서술자를 내세웠느냐? 3인칭 서술자를 내세웠느냐? 등에 따라서 작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의 정도(밀도)와 거리의식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1인칭 시점을 쓸 경우에는 대상과 밀착된 거리에서 직설적인 감정표현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2인칭일 때는 대상에 대한 공격성과 비판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¹²⁾ 그리고 3인칭일 때는 대상을 객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쓰기 쉽다. 따라서 3인칭의 사용은 대상을 상징화하거나 은폐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대상의 이름과 서술자를 구체적으로 명명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가명이나 익명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작자가 대상에 대해 경계하고 있거나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 거리

11) 모든 글 속에는 작자(주체)의 욕망이 숨어 있다. 따라서 분석자는 주체가 지향하는 욕망의 목표와 추구과정 등을 정확하게 읽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12)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p.95. 2인칭 서술자는 대개 검사나 수사관처럼 주인공과 행적을 함께 했거나, 그것을 자세히 조사한 자, 혹은 주인공과 생활공간을 공유한 인물이다.

를 두고 싶을 때 익명이나 가명을 쓸 경우가 많다.

(4) 문장과 문체의 해석

문장과 문체의 특성 또한 작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문체는 작자의 품성과 언어환경 등을 보여주는 심리적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개성과 성격적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그 밖에도, 문장 구성의 문법적 특성, 품사의 사용빈도, 문장의 종결어미의 사용법 등도 작자의 심리와 욕망을 해석하는 지표가 된다. 문체 분석과 문장 분석의 몇 가지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와 품사의 측면에서, 작자가 사용한 어휘의 종류와 품사의 빈도수 등을 살펴보는 것도 작자의 심리와 성격적 특성을 읽어내는 방법이 된다. 이를테면, 명사, 동사, 수식어, 접속사 등의 사용 빈도와 작자의 심리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 등이다. 둘째, 문장구조의 측면에서, 주어의 위치와 문장의 길이, 종결형 어미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작자의 심리와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셋째, 수사과 비유의 측면에서, 어떤 수사법과 비유법을 즐겨 쓰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작자의 심리구조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예컨대, 직유법, 은유법, 환유법, 상징법 중 어느 것을 잘 쓰는 지, 그리고 그 이유 등을 작자 심리와 연결시켜 해석한다. 넷째, 문체의 측면에서, 어떤 문체(건조체, 만연체, 화려체 등)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작자의 심리적 상황을 읽어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

(5) 주제의 해석

주제란 작자가 한 편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상이나 의미를 가리킨다. 대개, 주제는 작자가 집필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집필의도나 문제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작자는 그 문제의식을 선택된 글감을 활용하여 주제로 형상화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글의 주제는 어느 한 부분 속에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글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전체 구조와 문장 속에 골고루 융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¹³⁾ 이러한 주제 속에는 작자가 내적 성찰을 통해 얻은 주체와 대상간의

13) 대개 초심자의 글은 주제과악이 용이하지만, 수준이 높고 복잡한 글의 주제는 전체구조와

관계인식의 결과가 글의 주제나 세계관의 형태로 내포되게 된다.

2) 목적과제지도법

이 방법은 어떤 학생으로부터 인성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상 학생에게 그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갈등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주제와 제목을 주고 글짓기를 하게 유도한다. 그리고 나서 교사는 대상 학생의 글을 읽고 문제(갈등)요인을 찾아내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학생이 글짓기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학생이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갖게 될 경우 진솔한 글이 나오지 않고, 인성지도에 필요한 문제요인도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목적과제지도법은 6단계 과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① 대상자 관찰→ ② 인성 장애조짐 발견→ ③ 과제개발 및 부과→ ④ 과제 수행(글쓰기)→ ⑤ 해석과 평가→ ⑥ 인성지도 반영 등의 순서가 된다. 이제 단계별 지도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관찰과 문제의 발견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문제의식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과 성의가 필요하다. 교사의 치밀한 관찰은 학생들의 문제 요인을 찾아내는 데 효율성을 제 공함은 물론, 그 문제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여 대처하는 시간적 여유도 갖게 한다.

교사의 대상자 관찰 방법은 주로 학습현장에서 시각적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관찰법 외에도 면담법, 질문지법, 투사법 등을 인성 검사나 인성평가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이나 대담 같은 직접적인 방법은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체면의식 등 때문에 솔직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또한 질문지법이나 투사법도 제시된 질문의 내용과 자료의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는 전혀 밝혀내지 못한다는 한계성이 있다.¹⁴⁾ 필자는 이런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하

부분구조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의 인성적 문제점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글짓기의 방법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때, 관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며, 학생 편에 서서 학생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관찰행위를 통해 학생의 문제 조짐이 포착되면 곧바로 글짓기의 과제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2) 과제개발과 부과 방법

문제가 확인되면, 교사는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우선, 학생들에게 '과제글짓기'를 목적에 맞게 부과해야 하는데 과제글 부과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위기 조성, 장르 선정, 평가방법과 기준, 글감과 제목, 과제의 부과방법 등이다.

첫째, 글짓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분위기 조성이란 글짓기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안정된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글짓기가 사고력, 인식력, 판단력, 성찰력 등을 신장시켜 주고 정서를 함양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인성훈련의 방법이란 점을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제글의 글쓰기 장르는 형식적 부담이 없는 수필 형태가 좋다.¹⁵⁾ 수필은 시나 소설에 비해 형식이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편지 형식이나 대화 형식, 혹은 일기 형식 등 그 어떤 것도 좋다. 문제는 학생들이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글로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14) 보통 인성검사(평가)의 기법으로는 관찰법,면접법,질문지법,투사법 등이 두루 쓰인다. 이들은 검사자가 주체가 되어 피검사자의 인성적 문제점을 제한된 자료의 범주 안에서만 측정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글짓기는 피검사자(학생)가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문제점을 제한 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5) 수필은 흔히 '무형식의 형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내재해 있다. 즉, 이 말은 독립된 문학장르로서의 특정 형식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형식을 자유롭게 혼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필자는 수필을 진솔한 체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감동의 양식으로 설명한다.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그러나 학생들의 글짓기 실력이 향상되면, 점진적으로 시, 소설 등의 문학적 글 쓰기의 장르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테의 말처럼, 문학적 글쓰기는 풍부한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간을 미적 감동의 세계로 안내하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방법과 기준은 과제 수행 전에 미리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글짓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적극적으로 과제글짓기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인성지도를 목적으로 한 글짓기의 평가방법과 기준은 일반적인 글짓기의 기준에 비해 다소 파격적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글짓기의 평가기준이 내용, 구성력, 표현력 등의 조화로운 글쓰기 능력¹⁶⁾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인성지도를 위한 과제글은 자신의 삶(문제)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데 더 큰 평가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¹⁷⁾ 왜냐하면, 인성지도를 위한 목적과제글은 인성 발달의 장애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장력 같은 기교 등도 너무 강조하면, 글솜씨가 없는 학생은 부담을 느껴 글짓기를 꺼릴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초심자의 글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솔직하게 기술할 때 진솔한 감동을 자아내고, 또 그런 솔직한 글만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넷째, 글감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되, 제목과 주제는 교사가 발견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시켜 제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때,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특정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과제글은 집단적(전체적)인 과제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은 세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인성지도의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 관심사와 또래집단의 보편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정보 수집의 효과이다. 둘째는 글짓기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인성 함양에 기여한다는 점

16) Purves(1984)는 작문의 평가기준으로 크게 ① 내용과 사고범주, ② 조직범주, ③ 표현 및 문체범주를, 국제교육평가학회(IEA:1988)는 ① 텍스트의 구조화 기능, ② 텍스트 산출 기능, 그리고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5)은 ① 내용의 창안 범주, ② 내용의 조직 범주, ③ 내용의 표현 범주 등을 내세웠다.

17) 이러한 고려 속에는 두 가지 목적이 내재해 있다. 하나는 글짓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 장애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기교나 문장력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진실하고 솔직한 글이 학생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다. 셋째는 문제가 발견된 특정 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레 인성 지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과제의 해석과 평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글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필요로 한다. 교사는 구체적으로, 학생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그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인과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밝혀내어 해석하고 평가하는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잘못된 분석과 평가는 학생들의 문제를 왜곡하여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과제글의 분석과 평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작자의 창작심리를 심층적으로 읽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정확한 문제 발견과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둘째, 과제글에 대한 평가 시에 긍정적 결과는 가급적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과 함께 공표하고, 부정적 결과라 하더라도 비판보다는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교사가 칭찬을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친구들 앞에서의 칭찬은 큰 용기를 주고, 글짓기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결정적 동기가 될 수 있다.¹⁸⁾

셋째, 과제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교사가 정성스럽게 메모를 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생활화하도록 유도한다.

(4) 인성지도에의 반영

과제글짓기를 통해 발견된 문제는 교사가 구체적인 지도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인성지도에 반영시키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성의 문제는 발견보다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지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제자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지도계획을 수립

18) 교사의 칭찬 한 마디는 학생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여 인내심을 갖고 지도에 임해야 한다.

6. 결 론

이 글은 일선학교에서의 글짓기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방법적인 차원과 결부시켜 검토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글짓기지도는 상담이나 대담 형식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사고력, 인식력, 판단력, 표현력, 성찰력 등을 강화시키고 함양시켜 줌으로써, 인성 계발과 정서함양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글짓기를 통한 인성지도 방법으로는 자유과제지도법과 목적과제지도법을 제기하고 그 과정과 지도방법을 상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앞으로 한국의 국어교육이 글쓰기 교육 쪽으로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역설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인간은 오직 언어를 통해서만 사유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또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를 도구로 한 글쓰기는 국어교육의 종합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몇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쓴 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척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지도교사가 기본적으로 글짓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교육자가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등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시한 방법들이 학생들의 갈등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기 보다는, 숨어있는 인성적 문제를 발견하는 쪽에 더 큰 비중이 놓여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는 글짓기 교육이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인성지도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글짓기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성발달의 저해요인을 찾아내는 길도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앞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교육과 인성교육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데 하나의 의미 있는 시금석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상태. 한국현대문학론. 평민사, 1994.
———. 文體의 理論과 解析. 새문사, 1982.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루돌프 아른하임. 예술심리학(상),(하). 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마르틴 부버. 나와 너. 표재명 옮김. 문예출판사, 1996.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1995.
朴異汶. 詩와 科學. 一潮閣, 1980.
부르스터 기셀린. 藝術創造의 過程. 李商燮 역. 연세대학교출판부, 1964
李商燮. 문학연구의 방법. 探究堂, 1976.
제주대학교 작문교재편찬위원회 편. 대학작문. 학문사, 1992.
제임스 그리블. 文學教育論. 나병철 역. 문예출판사, 1987.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대화의 철학. 서광사, 1992.
한상철·조아미·박성희.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1997.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부록

글짓기 지도와 인성교육에 관한 설문지

(1996년 7월 29일 시행)

이 설문은 교도교사 연수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지도와 인성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지면관계상 설문내용과 조사결과를 함께 실는다.).

1. 선생님의 전공과 교직경험, 그리고 간단한 인적사항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 ① 전공(수학:12 국어:9 사회:9(행정1, 경영1 포함) 체육:6 과학:6 영어:5 상업:5 윤리:3 가정:3 교련:2 미술:2 불어:1 일본어:1 기술:1 건축:1 수산제조:1)
 - ② 교직경력(6-10년:5명 11-15년:26명 16-20년:18명 21-25년:18명 26-30년:2명),
 - ③ 연령(31-35세:6명 36-40세:21명 41-45세:20명 46-50세:11명 51-55세:9명 56-60세:1명)
 - ④ 성별(남자:50명 여자:19명)
2. 선생님은 글짓기 지도를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여러 차례 있다(9명, 13.0%)
 - ② 한두 번 있다(18명, 26.0%)
 - ③ 전혀 없다(42명, 60.8%)
3. 선생님은 그동안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문제를 다룬 글(수필, 논문, 책자)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작자와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 ① 없다(59명, 85.5%)
 - ② 있다(6명, 8.7% 작자:이오덕 제목: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거의 제목을 기억을 못함)
4. 선생님은 글짓기 지도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68명, 98.6%)
 - ② 잘 모르겠다(1명, 1.4%)
 - ③ 필요 없다(0명, 0%)

5. 선생님은 학생들의 글쓰기 행위가 정서순화 등을 통한 인성계발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은 방법이다(63명, 91.3%)
 - ② 그저 그렇다(4명, 5.8%)
 - ③ 잘 모르겠다(2명, 2.9%)
 - ④ 도움이 안된다(0명, 0%)
6. 앞으로 글짓기를 통한 인성지도 방법을 활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48명, 69.7%)
 - ② 고려해 보겠다(19명, 27.5%)
 - ③ 없다(2명, 2.9%)
7. 활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5항에서 '없다' 선택하신 분만)
- ① 지식과 경험이 모자라서
 - ② 방법이 어려워서
 - ③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기타 (1명) *6번에 '없다'에 선택하신 분 중 한 분은 무응답
8. 학생의 문제의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솔직하게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효용성이 큰 순서로 배열해 주십시오.(②, ③, ①, ④)
- ① 교사와의 면담(2명, 2.3%)
 - ② 글(일기, 수필 등) (34명, 49.3%)
 - ③ 친구와의 대화(33명, 47.8%)
 - ④ 부모와의 대화(0명, 0%)
9. 학생의 욕망과 갈등 내용을 암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글쓰기는 무엇입니까? 효용성이 큰 순서대로 번호를 배열하십시오(③, ⑤, ①, ②~④)
- ① 수필(7명, 10.2%)
 - ② 시(0명, 0%)
 - ③ 일기(49명, 71.0%)
 - ④ 소설(0명, 0%)
 - ⑤ 편지(13명, 18.8%)
10. 앞으로, 글짓기 교육의 정례화나 제도화를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글짓기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전략

- ① 꼭 하겠다(9명, 13%)
 - ② 한번 해보겠다(32명, 46.4%)
 - ③ 생각이 없다(13명, 18.8%)
 - ④ 소규모로 해보겠다(15명, 21.7%)
11. 요즘 학생들은 글짓기에 대하여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2명, 2.9%)
 - ② 보통이다(7명, 10.1%)
 - ③ 싫어한다(39명, 56.5%)
 - ④ 지겨워한다(21명, 30.4%)
12. 학생들이 글짓기를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어려워서(17명, 24.6%)
 - ②교육방법이 잘 못돼서(12명, 17.4%)
 - ③흥미유발이 잘 안돼서(36명, 52.2%)
 - ④기타(1명, 1.4%)
13. 학생들은 글짓기를 통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내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80~90%(10명, 14.5%)
 - ② 60~70%(30명, 43.5%)
 - ③ 50~60%(17명, 14.6%)
 - ④ 50%이하(12명, 17.4%)
14. 글짓기 이외의 효과적인 인성지도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 ① 상담활동(대화, 집단상담) : 16명
 - ② 집단활동(동아리 활동, 씨클활동) : 10명
 - ③ 기타(그림 그리기, 소꿉놀이, 종교생활, 명상수련, 자기노출 훈련, 봉사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독서지도, 좋아하는 작품 속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